

올해 10억이상 국세체납

광주·전남북 153명

법인, 대인주택건설 119억 최고

개인, 김우중씨 171억 가장 많아

(前성신정일 대표)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년 사이에 23명(17.7%) 늘어난 153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53명의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c.go.kr)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고액체납자는 법인 89명, 개인 70명 등 153명으로 체납액은 법인 2천827억원, 개인 2천153억원 등 4천980억원이다.

았으며 윤영성(85억원), 정찬범(83억원)씨의 순이었다.

한편 전국의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501명(23.3%) 늘어난 2천 636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조741억 원이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3년 째 정태수 전 한도그룹 회장이 차지 했으며, 체납액은 2천127억원을 기록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리타워 테크놀로지스로 722억원이었다.

광주·전남북 지역 고액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대인주택건설(대표·이철순)이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건설산업(윤영호·97억원), 서해건설(김영만·9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별로는 김우중씨가 171억원으로 가장 많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북 고액체납자 법인 상위 10위

| 순위 | 법인명 | 대표 | 체납액 |
|----|--------------|-----|-----|
| 1 | (주)대인주택건설 | 이철순 | 119 |
| 2 | 충남건설산업(주) | 윤영호 | 97 |
| 3 | (주)서해건설 | 김영만 | 91 |
| 4 | 리타워테크놀로지스 | 정태수 | 85 |
| 5 | (주)동포프리자 | 고재정 | 79 |
| 6 | 서호주상공업(주) | 사명 | 70 |
| 7 | (주)무등산신천레저타운 | 정순자 | 70 |
| 8 | (합)신입증건설 | 강창현 | 69 |
| 9 | (유)천산 | 박재우 | 61 |
| 10 | 신한국산업개발(주) | 사명 | 60 |

■ 광주·전남북 고액체납자 개인 상위 10위

| 순위 | 체납자 | 체납액 |
|----|-----------------------|-----|
| 1 | 김우중 (前성신정일 대표) | 171 |
| 2 | 윤영성 전 한도그룹 회장 | 85 |
| 3 | 정찬범 전 일성석유(주) 대표 | 83 |
| 4 | 한준수 전 철복산업(주) 대표 | 68 |
| 5 | 진현수 전 (주)아리아름 대표 | 58 |
| 6 | 김무현 전 (주)동포프리자 대표 | 57 |
| 7 | 김정원 전 에디션(주) 대표 | 56 |
| 8 | 김재우 전 (주)수영알렉스 대표 | 53 |
| 9 | 이정호 전 유남산업 대표 | 51 |
| 10 | 이정임 전 (유)호남전력통신 대표 | 51 |

옛 전남지사 공관

347억원에 팔려

'금싸리 땅'으로 관심을 끌어온 광주 서구 쌍촌동 옛 전남지사 공관 포함 총무시설 부지가 347억5천만 원에 매각됐다.

전남도는 20일 "쌍촌동 총무시설

부지(토지 3만1698㎡, 건물 3264.31㎡)에 대한 공개경쟁매각 입찰결과 예정가 189억200백만 원 보다 무려 158억여 원이 높은 347억5천만원(낙찰률 184%)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낙찰자는 전남 화순의 문운종합건설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IC칩 부착 전자여권 내년 발급

내년부터 사진 부착방식이 아닌 현행 사진복사식 여권에 안면정보, 흥채,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칩을 부착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20일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IT강국의 위상을 재고하고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자여권 발급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교관과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부터 일반 여권에 대해서도 전자여권을 발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사진복사식 여권에 IC칩을 별도로 장착해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여 안면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지문 혹은 흥채를 필요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바이오 정보 암·복호화를 위한 키 생성·관리, 범세계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공개기반키(PKI)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자여권 시범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행 여권발급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여권내 IC칩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인코딩(Encoding) 모듈, 카메라·지문추출기 등 여권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 입력시스템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도장학회' 이사 선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는 20일 전남도청에서 2006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진영 광주일보사 사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입사생 선발을 위한 신입생 성적기준 결정안 등 6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고재일 대창운수 사장과 권영

두 화천기공사 사장 등이 연임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조덕희(주)동원엔터프라이즈 이사(여·68·강진 출신)가 남도장학회에 기탁한 20억원 상당의 장학기금을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전환해 명칭을 '조덕희장학회 섭김의 리더십 장학금'으로 정했다. '조덕희 장학금'은 남도학습 입사생 중 성적우수자를 매년 10명씩 선발,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양 등 10개 노후항만 재개발"

당정 '항만과 주변 공간 개발법' 제정키로

9조2천억 투입... '부산북항 개발용' 의혹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여수, 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광양, 포항, 속초 등 10개 지역이다.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항만구역

과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공간은 항만재개발 구역 전세면적의

50%를 넘지 않되, 항만재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100%

범위 내에서 확대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우리당 강봉근

정책위원장과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이준희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기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

다고 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이 밝혔다.

개발대상 항만은 ▲노후화 정도 ▲

개발 잠재력 ▲재개발 기간 대체항만

확보 여부 등을 고려, 해양부가 응여

을 의뢰해 선정했으며 부산, 인천, 대

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광양, 포

항, 속초 등 10개 지역이다.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항만구역

과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공

간은 항만재개발 구역 전세면적의

50%를 넘지 않되, 항만재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100%

범위 내에서 확대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중에서 해양부 장관이 정

하고 소비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는 용자할 수 있게 했다.

변 위원장은 "우리 항만의 4분의 1

이상이 1960~70년대에 개발돼 시설

이 노후한 데다 신항만 건설과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으로 제래부두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며 "노후 항만을 문화와 상업이 조화되는 복합기능 항만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부산 북항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나머지 항만들을 끌어넣었다는 비판도 있다. 즉 투·포트(양항) 정체의 한 축인 광양항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9조2천억원대의 천문화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분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9조2천600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북항을 세계적인 국제해양관광·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술먹고 '타이레놀' 복용 사망 할 수도"

미 FDA 경고

미국 FDA는 음주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위험이 크다면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등의 일반의약품 진통제 약물 포장에 부작용 경고를 더욱 잘 보이게 하라고 주문했다고 뉴시스가 20일 보도했다.

미 FDA는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복용되는 타이레놀의 경우 우간상상의 위험이 높은 반면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의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의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부작용은 이 약물을 복용하는 일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고 미 보건당국은 경고했다.

미국에서만 한 해 수 천만명이 통증 해소를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가운데 FDA는 권장용량만 준수한다면 대부분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중학생 회장 선거도 터치스크린
광주 두암중학교는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으로 학생회장선거를 실시했다.

터치스크린 방식은 투표자가 화면을 보고 직접 손으로 터치하듯이 투표하는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다. 모두 800여 명이 참여한 이 선거의 개표는 5분만에 끝났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

국제협력봉사요원 모집안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정과 건강을 갖춘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파견 내역

◆ 활동기간 : 소집일로부터 30개월

◆ 파견국가 : 개발도상국

◆ 파견년도 및 만기 : 12개 직종, 100명

분야

직종

교육 체육교육(일반)

농촌 개발 수의사, 축산